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지상 설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 - 7절)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은 1,420쪽에 씌어진 기독교 고전으로, 발간된 그 날 이후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 시대의 유럽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매우 피폐하여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조국을 살리는 길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 받게 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받으라고 하면 뭔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 받으라”(엡 5:1)고 하는 수준 높은 요구를 합니다.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 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 이상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인간의 모든 의무의 총체라고 주석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공유적 속성에 속하는 것들을 본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5:1).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본받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하나님을 본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1. 용서하시는 사랑(Forgiving Love)을 본 받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본질로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공활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다.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2. 주는 사랑(Giving Love)을 본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2)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일 4:10).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는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자신을 주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쓸데없이 떠들어서 무리를 동요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산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여 자주 변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합니다.

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이기심, 혹은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속에서 우리는 생의 참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산 사랑(Living Love)을 본 받으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희생 제물은 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사랑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Practical and active Love)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사랑은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엡 4:25).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더러운 말은 버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26).

실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노를 버려야 합니다. 분하고 억울하다고 노를 품는 것은 실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산 사랑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1-32).

쓸데없이 떠들어서 무리를 동요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산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여 자주 변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불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영원하고 확실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주는 사랑, 산 사랑을 본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받는 자는(Imitator)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읽는데 베끼는 것, 흉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흉내 내고 모방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주고 행동하는 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 사명자대회 기도실에 불 밝히다

계속되는 행진 - 기도운동

2003 사명자대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되어 교회 설립시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7가지 공동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1층 웨스트민스트홀은 24시간 불을 밝히고 기도자들이 연속하여 기도하고 있다.

임고 오전10시와 오후10시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다니엘 기도를 드리며,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를 위해 대신카드를 제출하고, 증보요청신청서를 제출(접수함, 사무국 또는 현금시)하여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온 교인이 각 전도회 선교회 교회학교 교구 다락방을 통해 노방,축호,기관전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자.

이번주에도 아래 명단에 의거 맡은 이들이 빠짐없이 연속하여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 시간·구분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10.13(월) 13교구 | 이용식 김상철 류종관 김예중 | 이용식 김상철 류종관 김예중 | 이용식 김상철 류종관 김예중 | 이용식 왕경래 서춘식 | 이용식 왕경래 서춘식 | | | | 이현우 권미숙 | 유효심 최윤정 서용숙 유명희 | 13-5 이미숙 이순복 이난화 박순복 최원매 | 13-5 진용순 이애덕 김종자 김명희 | 이성택 | 최춘숙 | 이규정 | 김점숙 | 김은호 | 윤영국 | 구희미 이태화 | 강미숙 | 김희진 이병옥 | 서경애 | 서경애 장명순 김인실 | 장은영 |
| 10.14(화) 9교구 | 지혜영 하영수 이상호 | 지혜영 하영수 이상호 | 지혜영 하영수 이상호 | 지혜영 노승성 김인수 | 지혜영 노승성 김인수 | | | | 황재연 | 이영희 | 유묘중 | 강정옥 이상애 | 최영관 | 김순자 | 김미선 | 김숙화 | 가원정 | 손성실 신기숙 | 정경자 이은희 김진숙 | 김혜영 윤봉준 | 이점숙 배효복 | 서경애 권순단 | 서경애 박연순 | 이규정 |
| 10.15(수) 10교구 | 임규현 서문석 백수남 | 임규현 서문석 백수남 | 임규현 서문석 백수남 | 임규현 박도호 이계홍 | 임규현 박도호 이계홍 | | | | 안분선 | 안분선 | 서순영 | 수요1부 예배 서순영 | | 정경자 김계순 최길옥 김종자 | 김인숙 김영식 정현숙 | 장현숙 최길옥 진용순 김재근 | 정현숙 노옥자 김재근 서중숙 이난화 김명숙 | 노옥자 김재근 서중숙 이난화 김명숙 | 수요2부 예배 | | 양재인 서경애 장정화 | 노윤환 서경애 장정화 | 박연순 | |
| 10.16(목) 11교구 | 이태훈 민순구 오광환 | 이태훈 민순구 오광환 | 이태훈 민순구 오광환 | 이태훈 윤찬오 우지원 | 이태훈 윤찬오 우지원 | | | | 주화인 이영자 이영희 | 박이선 임병숙 | 이현숙 송미자 정수진 전용순 | | | 하숙 | 조정옥 신정순 김종자 | 정연택 오성애 | 함정희 김양숙 박제숙 | 송희숙 이영희 | 정경실 김사무엘 | 이옥희 김선미 | 김혜영 김건중 | 송숙영 송숙영 | 서경애 이송우 | 서경애 |
| 10.17(금) 12교구 | 김희정 임상현 이승우 김대웅 한형 | 김희정 임상현 이승우 김대웅 한형 | 김희정 임상현 이승우 김대웅 한형 | 김희정 임상현 신용식 김대웅 강원배 | 김희정 임상현 신용식 김대웅 강원배 | | | | 윤갑숙 김형택 주화인 | 윤갑숙 양호선 | 여옥기 | 정경자 이은희 | 이명용 | 정익순 | 이영희 | 김영식 김선영 고영배 | 임수정 | 서희숙 | 유명종 임인선 | 금요 기도회 김희진 고연우 | | 서경애 | 서경애 | |
| 10.18(토) 6, 7, 8교구 | 서명철 이완형 최형철 | 서명철 이완형 최형철 | 서명철 이완형 최형철 | 서명철 임준규 허상한 | 서명철 임준규 허상한 | | | | 김시라 주화인 | 김시라 윤숙희 | 김계순 | 김경옥 김정란 | 황금희 | 정경자 유윤상 김호준 서명조 | 윤숙희 최일춘 | 윤숙희 최일춘 김병용 김성은 | 박정인 성수영 | 박정인 성수영 정정숙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이영옥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 대,정부 이학주 송인권 서명철 |

새벽기도회

2003 성경암송대회 임박

26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31일(금) 본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성경읽기를 장려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암송대회를 매년 10월중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의 성경암송범위는 골로새서로 각 교회학교의 출전자들은 다음 주일이 되는 26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난 후 31일(금)에 예선을 통과한 성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본선을 갖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너무도 귀중한 말씀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며 끝보다 더 단은 해를 체험하며 올바른 삶의 지표로 삼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는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브라에 의해 개척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으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사상들이 침투하여 신자들을 미혹하였다. 에베브라는 이 문제를 듣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심방하였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낸 것이 골로새서이다.

이 서신은 편지를 쓴 시기와 대상 내용들이 에베소서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나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기독론'에 관한 것이다.

본 서신은 짧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며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증거한다.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지만 각종 그릇된 사상이 복음 진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한 혼합주의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다른 데서 구원과 만족을 찾게 한다.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예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런 시대에 골로새서 암송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되심을 확신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찬양예배 준비를

지금까지 우리교회는 글로리아 중창단의 인도 아래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찬양을 하며 예배를 준비하여 왔으나 파이프오르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난 10월 첫주일부터 아름다운 파이프오르간의 선율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하며 찬양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동안 찬양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글로리아 중창단의 수고에 감사하며 글로리아 중창단은 목회자세 미나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대내외적인 행사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된다.

금주의 성구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마 25:23)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Matthew 25:23)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제2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연장 탐방

제 24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9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전문화와 교회성장이라는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고 있다. 12년 간 봄, 가을로 열리는 이 귀한 프로그램에 구석구석에서 돕는 손길들이 있어 이들을 찾아가 보았다.

교회 일층 중앙에 있는 접수처에는 봉사자들이 등록하는 목사님들을 돕고 있다. 현재 약 250명이 등록이 된 상태며, 신규등록도 100여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처음 우리 교회를 접하는 분들과 재 강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접수처 옆으로는 테이블과 서적부가 있어 깔끔하게 차려입은 봉사자들의 마음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서적과 테이블을 팔고 있다. 서적 중에는 설계명, 테이블은 목회자 세미나와 강해 설교가 잘 나간다고 한다.

현관 문 앞에는 커다란 보온 물통에 커피와 울무, 생강차들이 모락모락 김을 피워 올리고 있다. 목회자들이 잠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피로를 털어 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밝은 미소아래 모두 한 잔의 커피처럼 향긋한 이들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하루 평균 1,000여 잔의 차가 나간다고 한다. 12년 동안 빠짐없이 이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소마일 권사님은 여러 번 찾아오는 목회자와의 재회가 늘 기쁘고 새로 등록한 분들과의 만남도 무척 반갑다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린다. 또한 새로운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이 고맙고 몸소 모범을 보이려고 열심을 내신다.

안내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새색시 같은 예쁜 봉사자들이 엘리베이터와 8층 식당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하며 친절히 안내를 하고, 교회 안내 유니폼을 입은 안내위원들은 웨스트민스터 홀 앞에서 밝은 미소로 안내하고 있다.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꽃처럼 환하게 빛나 보인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식당의 열기로 담당 권사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각 위치에 자리 잡은 봉사자들의 손길은 빈틈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주셔서 오히려 손이 남는다며 계속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신다. 담당 권사님은 손수 식단을 짜고 시장을 보아

음식을 대접하는데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하는 게 무척 기쁘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맛있게 먹었다며 요리 방법을 물어 올 때는 참으로 감사하

다고 하신다. 봉사자들 중에 숨어서 봉사하는 차량부 봉사자들이 있다. 단순히 차를 주, 정치시키고 안내하는 것뿐 아니라, 아침 일찍 나와 무거운 짐을 옮겨 주어 세미나 준비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며 끝나는 정리도 맡아 하신다. 다른 파트 봉사자들의 한결같은 감사에도 불구하고 별 것도 아니라며 열린 지하로 내려가는 뒷모습에서 진정한 봉사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은 1명은 플루트로 나머지는 기타를 메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조차 다 없애버리길라도 하듯 곳곳을 깔끔히 쓸고 닦아낸다. 이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 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날보다 더욱 더 좋다는...

유명희(편집부)



반갑습니다

설거지로 주님께 영광을

주영광 이정현 성도 가정(4교구)

2부 예배가 끝나면 8층 만나홀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설거지를 하는 청년이, 종종 걸음을 치며 이리 저리 식탁을 닦는 자매와 부부 사이란다.

주영광, 이정현 성도는 대학교 동창으로 97년 결혼을 하고 가까운 모교의 교회를 섬기다가 강남으로 이사 오면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서울교회를 찾게 되었다.

서울교회에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줄곧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2002년 말에 주보에 끼여있는 봉사부서 지원서를 보며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자고 했다. 우선은 부부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좋았고 현명한 아내가 결정한 일이라 주저함 없이 봉사부서로 식당을 선택했다.

주영광 이정현 성도는 의사부부로 각각 안과, 신경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다. 주영광 성도는 지금 강서구에 있는 실로암 안과 의사이다. 실로암 안과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맹인선교부에서 86년에 설립한 병원으로 무료개안수술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병원이다. 실로암 병원은 1년에 45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무료 진료를 하는데 그도 1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진에 합류를 하고, 지난여름에는 한 달간 중국에 있는 실로암 분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직 출산 계획이 없다. 그는 이 말을 하며 혹시나 어른들로부터 철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시간이 흐른 뒤 아이를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할 것이라고 한다. 마침 실로암 병원이 홀트 아동복지회와 결연을 맺고 있어 그 곳에 미숙아들이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기들의 눈을 검진하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후 2시까지의 설거지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이 시간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매주 만나는 성도들과도 이제는 낯을 많이 익혀 안부 인사를 나누고, 그 분들이 잘 먹었다는 인사라도 한 마디 하면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집사님들과의 교제도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그릇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그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어떤 집사님은 음식점을 하는 청년인 줄 알았다고 한다. 주영광 성도는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적당히 담아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쟁반과 그릇과 수저를 잘 구분하여 놓아 주기만 해도 설거지가 한결 수월하다고 귀뜸 한다.

주영광, 참으로 부담스러웠던 이름이다. 성이 하필이면 '주' 씨여서 더욱 그랬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이름이 자신의 삶에 도전이 되었다.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는가! 주영광 성도, 그는 오늘도 이름값 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아내와 함께 교회를 향한다.

허숙(편집부)



메시아 연합연습을 시작하면서

임상현 장로(메시아준비위원장)

지난 1964년부터 전통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성탄축하 음악으로 드러 온 메시아 합동연주회가 올해에는 우리 교회 주관으로 12월 16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내에 새로이 건축된 올림픽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1959년 런던 필이 연주한 장엄하고 낭만적이며 다소 호화스러운 메시아 오케스트라 곡을 서울시 교향악단이 동양 최초로 연주하게 되는데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어떤 메시아 곡보다도 훨씬 더 다 이내막 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축하 음악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고 전 교인이 이날 올림픽 홀에서 500여명의 대형 합창단이 펼치는 메시아곡을 감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축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이날을 비워 두심은 물론 주위에 같이 연주회에 참석할만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4천여 석의 올림픽 홀이 서울교회 성도들의 물결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합동연주를 위하여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두 달 여전부터 자체연습을 해왔고 어제 토요일 연습을 끝으로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될 전 합창곡에 대한 연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도 지휘와 반주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또 빠짐없이 참여하여 온 여러 대원들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화요일(10월 14일)부터는 앞서 순례자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린 대로 매주 화, 토요일 두 번씩 우리 교회(화요일 오후 7시 30분)와 영락교회(토요일 오후 4시)를 오가며 여러 교회의 찬양대원들과 함께 연합하여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교회의 자체연습에 꾸준히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는 고마운 마음 그지없으나 주관교회가 전체 찬양대원 500여명의 반수 이상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많은 대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성도들은 물론 젊은 대학, 청년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특히 교회 내에 성악 전공자들의 참여가 지극히 저조한 상태인데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 전공자들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것

이라는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연주회에 꼭 참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주회에는 낮은 데로 임하신 우리 구주탄생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소외되고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을 무료입장 형식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좋은 단체나 이웃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제3회 전국 자원봉사자 수화인양대회를 마치고



지난 3일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제3회 전국 자원봉사자 수화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수화통역봉사부터 농인선교 수화찬양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농인들과 건청인들 간의 교제와 이해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소속단체나 교회별로 수화찬양을 준비하여 손짓과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농인들과 건청인들이 한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려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농아인 선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농아인 선교회 진행자는 장소를 제공해준 서울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이중윤 목사님은 격려사를 통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불편함을 뚫고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합한 자원하는 마

음과 자세라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9팀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 우리 서울교회 예배대가 금상을 차지했는데 많은 훌륭한 팀 가운데 금상을 차지한 것도 기쁘고 감사할 뿐더러 대학부원과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등이 어우러져 연령과 직분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돌출되는 모습 없이 너무나 은혜롭게 순종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무엇보다 뜻 깊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음에도 아름답게 한마음으로 호응하였고 무엇보다 연습준비 기간동안에 예배대부 농인 성도들의 격려와 응원 기도에 힘입으며 건청인들이 농인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아끼며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2003 사명자 대회를 맞아 우리 예배대부도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동정

- 이중윤 목사는 13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3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추천사를 한다.
- 피택 장로(6분)은 17일(금) 노회 고시를 본다.
- 수상: 오은경 성도(3교구) 두타 벤처 디자인스 컨퍼런스 동상 수상
- 득녀: 이일영, 이선아 성도가정(12교구)(이재운 집사, 이용자 권사의 손녀)
- 이사: 장덕, 임인자 집사(12교구) 용인시 죽전2동 동성2차 101/1702 전화(031) 264-7589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정(1교구)
대치동 서진빌딩 6층 전화: 565-9039
하곡수 성도, 조영자 집사 가정(1교구)
대치4동 896-31 402호 전화: 539-7166
- 개업: 이현주 집사(4교구) 블루밍 피부관리실 개업
서초동 1604-7 전화: 011-770-1759
- 금주의 식사: 김영철, 정지원 성도가정(결혼을 감사하며)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 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30분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3 사명자 대회 기간 중 사명받고 사명따라 행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로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